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5호 [루게 제24618호] 주체103(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제일 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  
에서 618건설돌격대와 농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원수님께서 농장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전망대에 오르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6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대규모과일생산기지  
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도록  
전망대를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몸소 그 위치도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눈썹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  
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며 끝간데없이 펼쳐  
진 과수의 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바치고있는 돌격대원들과 농장종업원  
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1947년에  
창설된 고산과수농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속에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발자취가 굽이  
굽이 어려있는 철령아래에 대규모과수  
농장이 건설된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으로 일신된 고산과수농장의 력사의  
첫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였다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  
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사의 갈피  
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쇠그물울타리공장을 돌아보시였다.

지난해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쇠그물울타리  
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시고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쇠그물울타리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신  
장, 쇠그물장, 제관용접장, 형강  
생산장, 수지도포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18  
건설돌격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쇠그물울타리공장을 훌륭히 건설  
했다고, 내외부는 물론 모든  
요소요소를 멋있게 꾸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  
들은 과수원뿐만아니라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꾸리는데서도  
쓸모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용도의 쇠그물울타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과나무들의 생육상태를 알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그루에 사과  
가 몇알 달리며 알당 무게는 얼마인가를  
물어주시고 농장의 모든 과수원들에 사과  
가 땅이 꺼지도록 달리게 하여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과일향기가 넘쳐나고 과일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시였으며 농장에 필요한 물건기재와 설비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재대군인부부인 김주성, 김금희동우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집들이한 재대군인부부인 리정수, 손인옥동무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일떠선 2,000여세대의 문화주택들에 입사한 농장의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 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이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당의 의도를 관철

하는 길에서 돌격대가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 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 해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 돌격대 일군들과 건설자들, 고산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면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인 미하일 반첸코 대표가 2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선군령장 김정은원수》 도이칠란드단체와 기관 인터넷에 특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 받으신 2월에 즈음하여 도이칠란드 단체들이 17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도이칠란드단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기간 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지시로 선군조선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명도자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8월 25일을 선군절로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 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히시고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명도 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전승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시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였다. 또한 인민군인들이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와 마시명스키장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장소들을 많이 일떠세우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도이칠란드 MS러행사는 《2012년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명도 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전승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시고 탁월한 명군술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였다. 그이의 배짱과 담력은 선군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그이의 믿음과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끝까지 따를 충성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은원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매일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전승업적을 만대에 전하는 혁명전설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력사가 즐거이 차게 흐르는 조국땅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전하는 혁명전설들이 널리 구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술, 탁월한 명군술을 청송한 혁명전설들을 통하여 군대와 인민은 백범백승의 강철의 명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세계가 찬란한 반제혁명전쟁 승리의 기적과 더불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전승명도사에 빛나는 수많은 혁명전설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세대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 우세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 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술적 우세로 대승함으로써 강철의 명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혁명전설들에는 천제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군사적지략, 천리해인의 예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

의 신화를 깨어버리고 승리의 7.27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그이께서 전하는 혁명전설들이 널리 구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술, 탁월한 명군술을 청송한 혁명전설들을 통하여 군대와 인민은 백범백승의 강철의 명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술, 탁월한 명군술을 청송한 혁명전설들을 통하여 군대와 인민은 백범백승의 강철의 명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술, 탁월한 명군술을 청송한 혁명전설들을 통하여 군대와 인민은 백범백승의 강철의 명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펼치고 적을 앞뒤로 몰아치며 통쾌하게 섬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변만화의 전술과 비상한 통솔력을 보여주는 《날개돋힌 장군님부대》전설은 만사람을 경탄시켰다. 또한 《추풍락엽》, 《15분이 낡은 기적》 등의 전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경도전, 비행기사냥군운동, 이동로 병동대활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들로 적들을 요정내시고 351고지공격전투승리와 같이 혁혁한 전과들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신 사실들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진길에는 수만보에 이르는 그이의 승용차를 안전하게 모시라고 헌방중에 회한한 백조가 나타나 마을젊은이를 강가로 이끌었다는 이야기, 백두산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기적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전략은 하늘에 닿았고 그 빛나는 지략은 신기하기 이를데 없다는 칭송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펼치고 적을 앞뒤로 몰아치며 통쾌하게 섬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변만화의 전술과 비상한 통솔력을 보여주는 《날개돋힌 장군님부대》전설은 만사람을 경탄시켰다. 또한 《추풍락엽》, 《15분이 낡은 기적》 등의 전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담은 전설 《승리의 촉매나? 패배의 고배나?》는 미제의 허장성세를 야유하는 대명사로, 수치스러운 참패에 대한 조소로 세상에 전해졌다. 침략자들의 총장대가리들 《언감자》로 풍자한 《장진호반에서의 갑자농사》라는 유명한 전설은 장진호반의 포위전에서 무리죽음을 당한 미제의 비참한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레》를 자랑하던 미제《상승사단》의 살인장군이 조선인민군 전사에게 포로되던 대한 이야기, 서산락일의 운명에 직면한 적들의 가련한 처지를 조소한 《백악관지붕에서 까마귀 운다》라는 이야기도 인민들속에서 구전되고 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혁명전설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조선의 승리의 년대들을 이어 천만군민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적정기와 자부심을 끝없이 새겨 주고있다.

전승의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위인칭송의 전설들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전설로 빛날것이며 반제반미대결전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대국의 존엄은 천만군민의 생명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민족존엄 수호의 날과 날이 이 땅에 의미심장 하게 흐른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화된 적대정책을 추구하는 미제와 그 추종부리들이 감히 선봉질을 한다던 일제에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고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쓸어버릴 결사의 의지가 융합처럼 끓어번지는 나라의 전초선들.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 대항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고도 눈부신 현저시찰소식들은 날로 비상한 의미를 가지고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어버리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결정적인 선군정치에 어떻게 날로 찬연히 꽃피어나는가를, 목숨보다 귀중한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이 어떻게 굳건히 담보되는가를 철의 진리로 새겨주며 필승을 락판하는 천만의 대오를 파격히 추동하는 력사적인 정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송고한 사명을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의 길을 뒤임없이 이어가시기에 반대한비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친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 민족존엄의 성스러운 력사는 더욱 즐기치게 흐른다.

일제의 백두대군을 종안에 넣고 취락파락하진 전설적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이런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민족존엄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헌헌히 바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혁명의 운명을 안으시고 우리 민족의 오늘을 위하여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하시며 온 나라에 백두산총대바람을 거세치게 일으키던 백두산장군의 기록한 모습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눈곱뜨겁게 우러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대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으로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 주시었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냈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놓으셨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장엄히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상상할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존엄이다.

자주적인민으로 당당히 사느냐 아니면 타국적자들의 그 어떤 《관용》에 기대를 걸고 사느냐 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존엄을 잃고 갈망질망하던 년대였다.

번철과 투항은 곧 죽음이였다.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으면 민족의 존엄은 고사하고 나라자체를 망하게 할 때였다.

자주적권위병이나, 노예나, 력사의 이 물음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리발총대, 강대한 국력을 상징하는 백두산총대바람을 더 거세게 일으키는 선군의 길, 자주적 권위병으로 당당히 하는 민족존엄의 길을 택하시었다.

『적기』를 높이 부르며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3년간의 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요만 한 고대를 꺾은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정신과 기백을 더욱 발양시켜 우리와 맞서려는 열백천자들에게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최악의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길은 오직 선군을 하는 길이다!

이런 투철한 민족자주의 신념과 의지를 억세게 버리시면서 전전선을 종횡무진하시였으며 력사의 그 길에서 반동의 무리들을 유착담약 못하게 제압하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 그 위대한 장정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는 이 땅에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고 침략책동이 그칠새 없는 한 서리발총대를 억척같이 틀어쥐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야 한다는 위대한 애국의 정지였다.

1211고지, 오성산, 초도, 판문점, 철명...

그 이름만 조용히 불러보아도 가슴에서 피는물이 흐르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상스러운 붉은 기수호의 길이었다.

한발자국을 옮기는것이 천리길보다 더 어려운 가시덤불길이었다.

민족의 존엄과 리,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 위협천만한 최전방들에 매일같이 위대한 선군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지 않았던가.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추억하시는 기회에 하신 어버리장군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 수령님을 잃고 너무나 가슴터지는 일을 당하였던 그때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 혁명이 멀리 전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피는물나는 길을 헤쳐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닌날 그처럼 멸시당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도 당당한 세계에 빛을 뿌리고 그 존엄을 떨치게

된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영원무궁토록 잊지 말아야 할것이 무엇인가를 뼈에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오늘의 혁명령이 과연 어떤 괴물나는 대가로 마련되었는가를 심장에 안고 사는 사람만이 그 위대한 백승의 력사를 편민히 계승해나갈 신념을 가다듬을수 있기때문이다.

야전복차림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성하시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을 우러를수록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곧 민족존엄을 위한 자주정치였음을 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게 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던가.

천만의 철의 대오의 앞장에서 선군혁명봉은기를 필멸 휘날려가시며 전민을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시어 강성부흥의 열매 무르익는 계절도 안아오시였으며 선군으로 존엄의 성새를 쌓아올리신 어버리장군님이시다.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 인공지구위성들의 편이든 캐드진인, 승리의 축포속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솟아오른 사회주의신성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배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선군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불려오실수 있는 승리의 통장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찬란한 선군의 보검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굳건하여 날아가 오늘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백두산총대의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시키는 변함없이 선군의 기둥이다. 선군이 천만의 심장을 팡팡 울려준다.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관한 깊은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메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력장들의 각축전마오로 무참히 짓밟히던 예제날의 약소국이 오늘도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

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났던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명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이런 불같은 선군정치를 안으시고 선군혁명사를 더 팡휘롭게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입니다.

혁명의 최고사령부를 최전방에 두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전선을 종횡무진하시며 민족존엄의 성새, 강성국가의 승리봉을 높이 쌓아가시는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는 천만의 배심 열마나 든든한정거인.

력사의 4.25와 더불어 불멸할 8.25.

어버리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이 땅을 뜨겁게 달구던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친히 철의 인민이 날이 갈수록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승리를 더욱 굳게 틀어잡으시었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천하제일강자의 선연에 호응하여 전전선에서 원수님께서 철의 기둥으로 승리의 최성기를 힘있게 감잡지 않았던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전진로를 내다보시는 그이의 예지에 넘치신 안광도, 후대들에 대한 사랑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강행군사를 쥘어가시는 그이의 끝없는 헌신성도 이 억척불변의 신념에 뿌리를 둔것 아니던가.

서리발 번득이는 백두산총대, 깊은 혁명의 원수들과는 추호의 양보도 허용치 않고 적들을 무섭게 다 불려대시는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물지 않는 의의의 산악이며 원수님이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안아오시는 우리 천만군민의 존엄의 기둥이다.

성스러운 반대한비대결전의 승리의 오묘한 백두산총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총대력사는 금

주력과 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는 길이다.

평화를 위하여,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민족존엄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려는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천만대적이 떼지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최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총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사상과 위엄은 필승불패입니다!

이런 열화의 일련단상으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총대, 붉은 기수호신념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철의 기둥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총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사상과 위엄은 필승불패입니다!

이런 열화의 일련단상으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총대, 붉은 기수호신념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철의 기둥이며 민족존엄수호의 강력한 힘이다.

끓임없는 도전을 일삼는 적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평온한날이 없다.

력사의 반동들의 필사의 몸부림이며 우리의 총대앞에 전철하는 원수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하지만 평화가 귀중하다고 하여 결코 평화를 구걸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자기의 상대도 똑똑히 모르고 헤집 비는자들의 오만무제한 차사를 강건너 불보듯 할 군대와 인민은 더욱 아니다.

자존심을 손상당한 민족이 입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가셔지지 않는다.

우리 군대, 우리 인민 그 누구의 가슴을 들어다보라.

우리의 존엄을 어찌보려고 추악한 짓만 일삼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이 이글거리고있다.

이 지구가 세계산인들 낫치는 력사의 반동들은 미천한데 앞서 이것 부러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도전에 대한 강경대응은 곧 우리 천만군민의 존엄이다.

민족존엄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길만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총대력사는 금주력과 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는 길이다.

평화를 위하여,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민족존엄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려는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천만대적이 떼지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최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총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사상과 위엄은 필승불패입니다!

이런 열화의 일련단상으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총대, 붉은 기수호신념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철의 기둥이며 민족존엄수호의 강력한 힘이다.

끓임없는 도전을 일삼는 적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평온한날이 없다.

력사의 반동들의 필사의 몸부림이며 우리의 총대앞에 전철하는 원수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하지만 평화가 귀중하다고 하여 결코 평화를 구걸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자기의 상대도 똑똑히 모르고 헤집 비는자들의 오만무제한 차사를 강건너 불보듯 할 군대와 인민은 더욱 아니다.

자존심을 손상당한 민족이 입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가셔지지 않는다.

우리 군대, 우리 인민 그 누구의 가슴을 들어다보라.

우리의 존엄을 어찌보려고 추악한 짓만 일삼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이 이글거리고있다.

이 지구가 세계산인들 낫치는 력사의 반동들은 미천한데 앞서 이것 부러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도전에 대한 강경대응은 곧 우리 천만군민의 존엄이다.

민족존엄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길만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총대력사는 금주력과 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는 길이다.

평화를 위하여,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민족존엄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존엄을 해치려는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천만대적이 떼지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최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총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사상과 위엄은 필승불패입니다!

이런 열화의 일련단상으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총대, 붉은 기수호신념은 선군혁명의 영원한 철의 기둥이며 민족존엄수호의 강력한 힘이다.

끓임없는 도전을 일삼는 적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평온한날이 없다.

력사의 반동들의 필사의 몸부림이며 우리의 총대앞에 전철하는 원수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긴다.

하지만 평화가 귀중하다고 하여 결코 평화를 구걸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자기의 상대도 똑똑히 모르고 헤집 비는자들의 오만무제한 차사를 강건너 불보듯 할 군대와 인민은 더욱 아니다.

자존심을 손상당한 민족이 입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가셔지지 않는다.

우리 군대, 우리 인민 그 누구의 가슴을 들어다보라.

우리의 존엄을 어찌보려고 추악한 짓만 일삼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이 이글거리고있다.

이 지구가 세계산인들 낫치는 력사의 반동들은 미천한데 앞서 이것 부러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도전에 대한 강경대응은 곧 우리 천만군민의 존엄이다.

민족존엄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길만이

권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면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데에 사대애 병들고 속명처럼 망국을 겪어야 하였던 때가 결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은 곧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의 긍지이고 행운이다.

민족의 존엄.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하신 어버리수령님의 말씀이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팡펡 메아리친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자꾸 못살게 논는데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못살게 논다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나갈수 있다!

다섯길은 전승절이 다가오고있는 이즈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승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조국을 괴로 썩 사수한 혁명신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 하시려 깊이 마음 쓰신 하나의 이야기이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화국 이 날은 새 세대 영웅들인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육하는 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주제 86(1997)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새로 창작된 미술작품들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쪽의 코지 않은 그림 안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조선화 《포항의 8용사들》이였다.

그림에는 포항에 펼쳐졌던 격전장이 생동하게 형상화되어있다.

검붉은 포연이 흩날리는 고지, 최후결전의 순간 적들에게 한치의 땅도 내어주지 말고 웨치며 적진으로 육박하는 포항

의 8용사들, 그들앞에 나뭇기어는 포연에 그늘리고 파편에 쫓린 공화국기발...

군엄하신 안광으로 그림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화 《포항의 8용사들》은 교양적의가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아마 새 세대들은 조국해방전쟁 시기 포항의 용사들의 위훈을 잘 모를것이라고 하시며 회억에 잠기시었다.

포항의 8용사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포항제선의 한 무명고지라 그에 편철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여 싸운 영웅전사들이였다.

그들이 지켜선 고지의 뒤에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놓여있었다. 침략자들은 그 길을 노리고 비행기와 지상포, 합포까지 동원한 대병력으로 악을 쓰며 거여 들었다. 포탄도 총탄도 다 떨어져 고지에 남은것은 수류탄 몇개와 총창자뿐이였다.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조국을 위하여 두눈을 잃고 팔다리가 부상당한 속에서도 포탄에 터지고 찢긴 몸이었으나 총창을 비껴들고 온몸이 육탄이 되어 원수들을 맞받아 싸웠다.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인민군대의 불굴의 기상과 육탄정신을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원수들을 전멸케 하였다.

한쪽의 그림이 주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50

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위훈과 정신을 헤아리시며 그림에 담겨있는 교양적가치를 순간에 가슴해보시었다.

포항의 8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육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싸운다면 그 어떤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다는 신념이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있다.

그림이 가지는 교양적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미술작품들을 각급 학교들과 대학강당같은데도 많이 걸어 놓고 학생들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미술작품들을 보면서 영웅적 투쟁모습들을 눈에 익혀두면 앞으로 유사시에 전세계 사람들의 투쟁을 본따서 용감하게 잘 싸울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하나의 미술작품을 보아주시면서도 누구나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이 발휘한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해 마음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

일군들은 혁명의 새 세대들을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창렬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깊이 새기였다.

조선화 《포항의 8용사들》은 오늘도 잊지 못할 그림의 뜻깊은 사연을 길이 전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주제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데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6(1997)년 7월 27일 어느 한 녀성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지휘관이 그이께 병실의 창문을 가리키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던대로 병실창문을 작게 내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몇해전 녀성해안포병중대를 찾오시였을 때 병실의 큰 창문을 보시며 열순이 많이 병실의 온도를 보장하기 힘들었다. 기본 전투단위의 병실은 창문을 쳐마 밑에 작게 환기창형식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실창

문을 가리키시며 지휘관들에게 병실창문을 이렇게 작게 내니 좋은가고 물으시었다. 《창문, 창문이 작으니 겨울에는 찬바람이 적게 들어와 좋고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 선선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의 미더운 녀성군인들은 지금 나라의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우리의 기록한 녀성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 군부대지휘관들은 녀성군인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건강한 몸으로 조국보위소에서 처신시절을 값높이 꽃피우도록 하여야 한다. ...

혁명의 의의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어버리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혁명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새겨 주신 날도 뜻깊은 전승절이었다.

어느해 전승절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지휘부까지 돌아보시고나시였을 때는 사랑이 먹물을 뿌려놓은듯 어둠에 싸여있었다. 이 제나저제나 현저시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일군들은 금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은 백두산혁명군인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낼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의의

우리 장군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어버리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혁명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새겨 주신 날도 뜻깊은 전승절이었다.

어느해 전승절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지휘부까지 돌아보시고나시였을 때는 사랑이 먹물을 뿌려놓은듯 어둠에 싸여있었다. 이 제나저제나 현저시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일군들은 금

길로 성품성을 걸음을 내짚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현저시찰앞에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조령들을 모두 썰고 말라고 말씀하시었다.

조령들이 커져서 순식간에 어둠이 둘러지고 현저시찰이 환히 안겨드는데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저시찰에 새겨진 어버리수령님의 교시를 승엄한 격정속에 바라보시었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 새기고 그대로 투쟁하고 생활하여야 한다고, 그러하여 수령님의 뜻을 영원히 담보워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리 김 본

## ☆ 전승절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 ☆

한쪽의 그림이 주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주제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데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6(1997)년 7월 27일 어느 한 녀성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지휘관이 그이께 병실의 창문을 가리키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던대로 병실창문을 작게 내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몇해전 녀성해안포병중대를 찾오시였을 때 병실의 큰 창문을 보시며 열순이 많이 병실의 온도를 보장하기 힘들었다. 기본 전투단위의 병실은 창문을 쳐마 밑에 작게 환기창형식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실창

문을 가리키시며 지휘관들에게 병실창문을 이렇게 작게 내니 좋은가고 물으시었다. 《창문, 창문이 작으니 겨울에는 찬바람이 적게 들어와 좋고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 선선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의 미더운 녀성군인들은 지금 나라의 혁명무력강화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녀성혁명가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우리의 기록한 녀성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 군부대지휘관들은 녀성군인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건강한 몸으로 조국보위소에서 처신시절을 값높이 꽃피우도록 하여야 한다. ...

혁명의 의의

우리 장군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어버리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혁명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새겨 주신 날도 뜻깊은 전승절이었다.

어느해 전승절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지휘부까지 돌아보시고나시였을 때는 사랑이 먹물을 뿌려놓은듯 어둠에 싸여있었다. 이 제나저제나 현저시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일군들은 금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은 백두산혁명군인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낼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의의

우리 장군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어버리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혁명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새겨 주신 날도 뜻깊은 전승절이었다.

어느해 전승절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지휘부까지 돌아보시고나시였을 때는 사랑이 먹물을 뿌려놓은듯 어둠에 싸여있었다. 이 제나저제나 현저시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일군들은 금

다시 참관하게 된 사연

이미 다 보았기때라고 말끝을 흐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번 돌아보고 그 내용을 다 알수 있는가고 다시 물으시는것이였다.

새로위원은 모든 동무들이 한두번씩 가보았을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긴장하기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알만 하다고, 그러나 한두번 가보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

들과 전법들을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들에 대하여 세부부위장 이 대답을였다.

한번 웃음을 지으시며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제대군이 다르긴 다르다고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런데 전략전술적 방침에 대하여서는 더 이야기할것이 없었고 재차 물으시었다.

그는 말문이 막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것 보라고, 우리는 대혁명생들인만큼 어버리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쓰신 전법들뿐 아니라 전략전술적방침들도 잘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순간 초급일군들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급일군들에게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하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우리 인민과 인민군인들의 영웅적인 품포를 더 잘 알게 될것이며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미제를 타승한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리 김 본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새포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참관을 다시 조직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이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대학생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참관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참관을 통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회의 나날에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과 주제혁명들을 더 깊이 파악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락한 수령의 령도밑에 어떻게 영웅적 인민으로 존엄떨치였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는가

본사기자 리 김 본

##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온 속사플혁명사적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신 집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준비하시며 리용하신 등잔과 회의때 리용하신 책상, 의자

속사플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이다.

주제 39(1950)년 10월 21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속사플에 계시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라는 결론을 하시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체제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 조선로동당 단체와 정치기관을 조직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군대안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군사규율을 확립하고 전투능력을 백방으로 높여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이 조치에 따라 조선인민군 문화훈관국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으로, 각 부대의 문화부들





